“교사·학부모 지키지 못한 수장 신뢰 못한다”

광주진보단체, 장휘국 교육감 정책 혹평

혁신학교 정책·측근인사 감싸기 등 비판도

“교육감을 믿고 따르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수장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에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는 등 소통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진보연대, 흥사단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진보교육단체들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전교조 광주지부 강당에서 ‘진보교육 3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장휘국 교육감 3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토론회에서 무상급식·혁신학교·교육비리 근절·학교폭력 기재 등 장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을 혹평했다.

이 단체는 장 교육감이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전국이 다하는 정책이므로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용있게 추진됐는가를 살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쌀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은 학부모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학교 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신청 학교가 줄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비리 근절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여전히 청렴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떡값교장’에 대한 미숙한 인사발령 행정처리는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학교폭력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가장 큰 실망”이라며 “교육감을 믿고 따르는 교사들과 학부모를 지켜주지 못한 수장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 “지역 사회와 불통, 정기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 오락가락 행정, 측근인사 감싸기 행보 등은 진보교육 자체를 무능하거나 이념적 틀에 안주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장 교육감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광주진보연대는 “장휘국표 개혁정책이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는 등 교사·학부모·시민들의 체감도가 극히 낮다”며 “특히 교원평가·일제고사·학교폭력 기재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개혁주체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추진해 중심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광주진보연대는 “교육감이 조직을 의지대로 장악하지 못해 교육현안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통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교조 광주지부도 “비서실 약화로 인한 교육감의 정무적·정책적 보좌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드러난 한계에 실망한 면도 있다”며 “학교문화혁신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체감도가 낮고 교원평가·학교폭력 기재 등에서는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지역의 교육주체가 뜻을 모아 광주교육의 전망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흥사단 광주지부는 “교육행정 관료들의 변화와 개혁의지가 없는 상황을 비유해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정책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사랑의 온도탑’ 제막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4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 참여한 강운태 광주시장 등 내·외빈들이 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렸다. 광주지역 모금 목표액은 32억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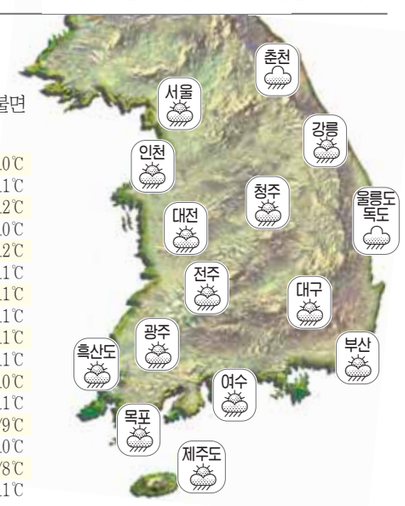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7분 해짐 17시 22분 | 달뜸 --시 --분 달짐 12시 23분

비 온 후 기온 ‘뚝’

비 그친 후 바람 강하게 불면서 춥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7/10℃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9/11℃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9/12℃
나 주	흐리고 한때 비	7/10℃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9/12℃
구 례	흐리고 한때 비	7/11℃
강 진	흐리고 한때 비	7/11℃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7/11℃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7/11℃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7/11℃
영 광	흐리고 한때 비	8/10℃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8/11℃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8/9℃
군 산	흐리고 한때 비	8/10℃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7/8℃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9/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감기지수	식중독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6:20 12:57	11:35 --:--
여수	01:01 13:48	07:12 20: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12/1(일)
날 씨						
최저/최고	2/9	3/6	0/4	-1/5	-1/8	2/10

본격 겨울추위…광주·전남 오늘 눈·비

25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나 눈 오는 곳 있겠다. 비가 온 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며 이달 말까지 하루 간격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많게는 40㎜ 가량의 비가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광주 아침최저기온은 2도로 전날에 비해 5도 이상 떨어지겠고, 상층기압골이 남하하면서 27일부터는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이 22일 발표한 ‘2013~2014 겨울철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 초순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올 겨울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다음달 초순께부터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저기압의 발달로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이 평년(10~16㎜)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고, 하순에도 평년(2~4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겨울’은 적어도 1월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능성적 통지 코앞 ‘출제오류’ 소송 움직임

세계지리 8번 문항 틀린 학생들 국가 상대 정정 소송 낼 듯

잇단 수능문제 논란…“영어 문항, 학원 교재와 비슷” 제기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성적이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있어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능 성적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점수를 다시 매겨달라는 취지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일부 학생들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700억 달러, NAFTA는 18조6800억 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세계은행과 유엔의 지난해 통계다. 보기와 함께 제시된 세계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2012’라고 적혀 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어영역 일부 문항은 학원 교재와 거의 같게 출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영어 B형 39번 문항은 EBS 교재에는 ‘빈칸추론’이지만 수능에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로 변형됐는데 유형뿐 아니라 해당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제시된 보기 5개 중 4개가 대성학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인 ‘대성마이맥’의 한 영어 강사가 만든 수업자료와 일치했다.

수학영역은 A형 18번 문항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 주려고 할 때 학생들이 흰색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 1개 이상 갖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다.

그러나 평가원 게시판을 보면 문제에서 같은 색의 탁구공을 구별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연합뉴스

광주경찰, 경무관급 1명 증원

학폭 전담 여성청소년과 신설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관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또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가 신설·확대됐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경무관 계급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같은 계급의 1·2 부장이 신설됐다.

1 부장은 경무·정보화장비·정보·보안 등 치안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2 부장은 수사·경비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검 ‘반부패부’ 신설

중수부 대체 조직 역할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인 ‘반부패부’가 사실상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대검 내에 반부패부가 신설된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